

호우 따른 농산물 피해 최소화 · 수급 안정 총력

농식품부, 고랭지 배추 · 무 정부비축물량 등 탄력적 방출 가격 안정화 추진 2차 피해 예방 위해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통한 신속 방제지원, 약제 할인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 호우, 장마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일시적 수급 불안정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배추, 무, 상추, 애호박, 깻잎 등 하절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농가 경영안정과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무는 주산지의 호우피해는 적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상태에서 강우 등에 따른 작업 여건에 따라 가격 등락중이다.

최근 폭우 등으로 김장철 배추 공급 부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으나,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의 본격 정식은 8월말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올 가을

배추 재배의향 면적도 평년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측(KREI, 농업관측)돼 가을철 김장배추 수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확이 종료된 마늘·양파는 호우 등에 따른 피해는 없으며, 평년 수준의 안정적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장마, 고온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배추·무는산지 작황 점검을 강화하면서 영안제 할인(30~50%)공급, 방제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일시 상승함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1일 50~100톤)과 함께체계적안정제 약제 물량(배추 3만7,000톤, 무 4만4,000톤 등)을 활용한 조기출하 등으로 가격을 안정

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큰 열대야배추, 상추,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최근 호우·일조량 부족 등으로 공급이 감소해 높은 시세가 지속 중이나, 현재의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은 최근 장마 지속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고 출하회복이 빨라 장마기 이후 2~3주 내 수급 안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장마 장기화 등에 따른 병해 발생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할인 공급(30~50%), 방제 지도 강화를 통해 안정생산을 지원한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 마트 2,300개소에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할인행사는 최근 높은 시세인 주요 업체류(상추, 열대야배추, 열무, 오이)를 대상으로 13일부터 23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행사기간내 전국 하나로마트를 방문할 경우 시중보다 20~30% 산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출하가 시작된 복숭아,포도 등 햇과일은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당도 저하 등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낮은 시세 지속중이다.

반면에 작황부진·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였던 2019년산 사과·배에 이어, 현재 출하 중인 2020년산 사과, 8월 하순 출하 예정인 배도 올해 병해 피해 영향으로 성수기(추석)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추석절 수요(사과 11만톤, 배 11만5,000톤) 대비 사과는 4.5배(49만1,000톤), 배는 1.4배(16만1,000톤) 생산이 예상되어 명절 수급에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축산물의 경우, 최근 집중 호우로 육계 등 피해가 있으나, 평년에 비해 한

우·돼지·육계 등 사육마릿수가 증가해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축산물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 장마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통소비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진청·농협·aT·KREI 등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

TF는 주요 채소류의 피해 현황, 주산지 동향 등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여름철은 장마 외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 변동요인이 많은 만큼, 피해 현황 및 수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 합격자 13명 추가 배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이 2020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13명의 기능장을 추가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합격자 발표 결과 이 회사는 버스차체도장부 박진현 씨가 배관 부문 기능장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총 13명이 가스 및 위험물, 에너지, 용접 등 5개 부문에서 기능장에 합격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1년 기능장 5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간 한 해 평균 23명씩 총 230명의 기능장 합격자(중복합격자 포함)를 배출하며 우수 기능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기능장 수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 품질 등 제품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처럼 많은 기능장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대 최초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직원들 여가시간을 회사 차원에서 자기계발로 유도 ▲기능장 합격자에 대해 회사 차원의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강력한 동기부여 ▲다수의 기능장, 품질명장 등 사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스터디 모임 활성화 등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우·이종복 기자

새만금개발청,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사업 순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수)은 11일 새만금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을 위한 제3차 공모 관광개발 사업시행자로 (주)새만금브이알에이알리조트(이하 새만금VR·AR리조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새만금VR·AR리조트는 새만금사업부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투자협약서에 실행요건으로 제시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 자본금을 최종 납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새만금VR·AR리조트와 함께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의 속도로 활용할 국제 체인호텔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VR테마파크를 조성해 새만금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13억원을 들여 1단계로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에 맞

춰 고급리조트와 VR테마파크,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한다.

특히 1단계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이 새만금 관광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새만금VR·AR리조트 김성광 대표는 "올해 안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경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곧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3일 효천지점을 이전하고 11일 이전식 행사를 가졌다.

고객편의 증진... 전북은행, 효천지점 확장 이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일 효천지점을 이전하고 11일 이전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은행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17, 2층 소재에서 더 넓은 공간인 효천중앙로 22(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크 상가), 1층으로 확장 이전해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점포이전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이성란 부행장, 이미숙

전주 효천지구 내 최초의 1금융권 은행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1년여 간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 3일 현위치인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22(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크 상가), 1층으로 확장 이전해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점포이전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이성란 부행장,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과 (유)남경종합건설 정준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따뜻한 전북은행이 되겠다"며 "아파트 입주인 및 입점 상가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겉질째 한입에 쏙~

국산 작은 사과 '루비에스' 인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재배가 쉽고 품질이 뛰어난 국산 작은 사과 '루비에스'가 올해 100여 톤 이상 유통될 예정이며, 일본 품종을 대체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작은 사과는 9월 말쯤 익는 일반 품종 '알프스오토메'가 유일했다. '알프스오토메'는 떨어짐(낙과) 피해가 크고 수확 뒤 급세 푸석거리며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숙기(적과)를 해야 한다.

농진청이 2015년 개발한 '루비에스'는 무게는 60~80g, 크기는 타구공보다 약간 큰 사과이다. 최근 1인 가구 늘면서 도시락용, 컵 과일용 등으로 주목받는 품종이다.

익는 시기는 8월 말이며, 당도 13.9브릭스(bx), 산도 0.49%로 '알프스오토메'보다 더 달고 덜 시다.

또한, '알프스오토메'와 달리 낙과가 거의 없고, 상온에서 50일 이상 유통할 수 있을 만큼 저장성이 좋다. 열매를 숙지 않아도 정상적

으로 재배할 수 있어 일본 품종보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현재 76개 모목 업체에 '루비에스' 품종 모목 생산권을 양도했다. 기존 '알프스오토메' 모목 생산 업체 대부분이 '루비에스'로 품종을 변경했고, 대과(큰 과실) 모목 생산 업체도 생산량을 늘리는 추세다. 올해 '루비에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톤가량 많은 약 1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루비에스 보다 조금 더 큰 중간 크기 품종 황옥과 피크닉은 각각 9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용혁 사과연구소장은 "기존 일반 품종 생산 농가는 '루비에스'로 품종을 교체하고 있고, 새로 작은 사과 재배를 시작한 이들도 '루비에스'를 선택하고 있다"며 "국산 사과가 일본 품종을 대체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과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올해 2회차 '백년가게' 신규 선정

중기청, 이성당 · 원조뽕뽕이냉면 · 국제금고사 · 함지박 등 4곳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최근 올해 2회차 백년가게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 소상공인 4곳을 '백년가게'로 신규 선정했으며, 이로써 도내의 백년가게는 모두 35곳으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 농가와 상생하고, 전화·온라인 주문 도입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춘 경영 혁신을 지속해 군산지역 대표 관광지로 인식될 만큼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원조뽕뽕이냉면'은 4대에 걸쳐 전수된 레시피를 통해 1대 대표가 평양에서 운영하던 냉면집 맛을 재현해 전통은 손스럽지만 깨지지 않는다'는 경영철학으로 군산 대표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금고사'는 주문 제작 금고 및

도 제공된다.

이울러 정부의 외식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4일 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백년가게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며, 백년가게 방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백년가게 공식 홈페이지(100year.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blog.naver.com/marketagency), 식신인스타그램(@sksinhot)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백년가게는 차별화된 제품·서비스와 혁신적 경영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오랜기간 업력을 쌓아왔다"며 "이분들이 백년가게 브랜드를 널리 전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청도 이분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교육은 단계·분야별 교육 과정으로 진행예정이며, 창업기초교육과정(1단계 20시간)은 창업절차, 창업 기초세무·회계 등 창업 전반관련 공명교육이 제공되고, 창업심화과정(2단계 30시간)은 업종별 소규모 특화교육, 1:1 맞춤형 전문 멘토링으로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등을 통해 1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2천만원, 2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5천만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2단계 과정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3명을 선발하여 각 400만원의 초기 창업비를 지원하며, 교육 수료 후 창업업체의 성공 경영안착을 위한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시제품제작 및 홍보마케팅, 시설계획)신청도 가능하다.

참여대상과 모집기간은 도내 만 20~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오는 14일(금)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및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추석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 모집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조지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2020 추석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추석맞이 온라인 프로모션의 모집대상은 전북 소재의 우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품목으로는 명절선물세트, 가을 제철식품,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모션 행사 기간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제품 선정 방법은 각 채널의 MD가 제품의 차별성과 가격·품질 경쟁력을 통해 선정한다.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청년창업자 지식기반 창업교육생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기반 창업교육 2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 창업의 문을 여는 20~30대 예비청년창업자 필수 창업교육으로, 기초 및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창업자를 육성하는 실천 창업교육과정이다.

교육은 단계·분야별 교육 과정으로 진행예정이며, 창업기초교육과정(1단계 20시간)은 창업절차, 창업 기초세무·회계 등 창업 전반관련 공명교육이 제공되고, 창업심화과정(2단계 30시간)은 업종별 소규모 특화교육, 1:1 맞춤형 전문 멘토링으로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1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2천만원, 2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5천만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2단계 과정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3명을 선발하여 각 400만원의 초기 창업비를 지원하며, 교육 수료 후 창업업체의 성공 경영안착을 위한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시제품제작 및 홍보마케팅, 시설계획)신청도 가능하다.

참여대상과 모집기간은 도내 만 20~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오는 14일(금)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및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